# 運氣學說의 기원에 대한 硏究

1. 序 論 ..... 56

2. 文獻에 나타난 天文과 氣象의 파악 ..... 56

3. 五六相合의 起源 ..... 58

4. 運氣와 관련된 초기의 기록 ..... 59

5. 干支紀年 ..... 60

6. 結論 ..... 61

參考文獻 ..... 62

KYOBO 교보문고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 運氣學說의 기원에 대한 硏究

大田大學校 韓醫科大學 原典學敎室 尹暢烈

## 1. 序 論

五運六氣가 완전한 학설로서 의학서적 중에 나타난 것은 唐代 王氷이 補入한 素問의 天元紀大論, 五運行大論, 六微旨大論, 氣交變大論, 五常政大論, 六元正氣大論 및 至眞要大論의 所謂 運氣七篇으로부터 비롯한다.

그런데 王氷은 先生郭子齋堂에서 受得先師張公秘本하야 補入하였다고 하여 結局 運氣學說이 언제 누구에 의해 확립되었는지는 확실히 알려져 있지 않다.

運氣學說은 질서있게 변화하는 자연계의 기후변화의 규율을 파악하여 천인상응의 원리에 의해 기후변화가 인체의 生理, 病理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여 질병치료의 諸理論을 확립한 의학기상학설이다. 이에 著者는 運氣學說의 올바른 이해를 위해서는 運氣學說의 기원과 역사에 대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어 연구 보고하는 바이다.

## 2. 文獻에 나타난 天文과 氣象의 파악

농경사회가 이루어지면서 통치자는 氣候와 氣象의 변화를 파악하여 農事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 급선무였다. 가장 오래된 역사의 기록으로 인식되는 書經 堯典의 기록에 의하면 堯가 "乃命羲和하사 欽若昊天하야 曆象日月星辰하야 敬授人時하시다"[1]라는 말이 있다. 이는 堯가 羲氏와 和氏의 天地四時를 관찰하는 관리에게 命하여 日月星辰의 운행도수를 관찰하여 백성들에게 농사짓는 때를 가르쳐 주었다는 내용이다. 이처럼 자연계의 기후변화의 파악은 인간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중의 하나였던 것이다.

구체적으로 堯는 羲仲에게는 봄의 기후변화를, 羲叔에게는 여름의 기후변화를, 和仲에게는 가을의 기후변화를, 和叔에게는 겨울의 기후변화를 관찰하게 하였는데 이는 周代에 이르러 春官, 夏官, 秋官, 冬官으로 발전하여 그 직책이 더욱 더 중시되고 있다.

이밖에 書經의 洪範에서는 "四五紀는 一曰歲오, 二曰月이오, 三曰日이오, 四曰星辰이오, 五曰曆數니이다"[2]라 하여 四時, 晦朔, 日의 躔度, 日月星辰運行의 법도 등을 파악하여 책력을 만드는 법이 기록되어 있고 또 同篇에 "八庶徵은 曰雨와 曰暘

1) 書經集傳, 서울 二以會 刊 1983. p.57
2) 上揭書 p.466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과 曰燠과 曰寒과 曰風과 曰時니 五者來備호대 各以其敍하면 庶草도 蕃廡하리라"[3]하였고 蔡沈은 注에서 "雨屬水하고 暘屬火하고 燠屬木하고 寒屬金하고 風屬土"[4]라 하여 때에 따라 이르는 雨暘燠寒風의 자연의 기후를 五行의 원리로 해석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이처럼 중국사람들은 자연계의 기후변화를 파악하기 위하여 일찍부터 노력하였고 이를 五行의 法則에 배합하여 이해하려고 했던 흔적도 엿볼 수가 있다.

또 同篇에 "庶民은 惟星이니 星有好風하며 星有好雨니라. 日月之行은 則有冬有夏하니 月之從星으로 則以風雨니라. (서민은 별이니 별은 바람을 좋아하는 것이 있고 비를 좋아하는 것이 있다. 해와 달의 운행에는 겨울이 있고 여름이 있으니 달이 별을 따름으로 비바람을 알 수 있다)"[5]라 하였다. 蔡沈은 注에서 "好風者는 箕星이오 好雨者는 畢星이라"라 하였고 또 "月行東北하야 入于箕則多風하고 月行西南하야 入于畢則多雨하니 所謂月之從星則以風雨也라" 하였다. 이는 옛사람들이 天象을 관찰하여 달이 箕星을 지나가면 바람이 많이 불고 畢星을 만나면 비가 많이 온다고 한 것으로 天文과 기후의 상관관계를 밝힌 것으로 이는 詩經, 小雅, 都人士之什의 漸漸之石(삼삼지석)의 "月離于畢하니 俾滂沱矣로다(달이 畢星에 걸려 있으니 비가 주룩주룩 내리리로다)"[6]와 뜻이 상통하는 부분이다. 또 우리는 "庶民惟星"이라는 글을 통해 天人相應의 사상도 엿볼 수가 있다.

천문을 통한 기상의 파악은 매우 일찍부터 시작되어 甲骨文에도 별의 이름과 日食, 月食 등의 기록이 나타나고 있으며 위에서 언급한 尙書, 詩經 외에도 春秋, 左傳, 國語, 爾雅 등에도 수많은 星數에 관한 記述과 풍부한 天象記錄이 있으며 史記에는 天官書, 漢書에는 天文志가 있어 중국 고대의 천문학 지식이 이미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것을 살펴 볼 수가 있다.

이들은 天元紀大論의 "九星懸朗 七曜周旋", 五運行大論의 "五氣經天化五運", 氣交變大論의 "上應五星" 등의 이론적 배경을 이루고 있다.

左傳 僖公 五年(B.C 655)條를 보면 "春王正月 辛亥 朔에 日南至라. 公이 旣視朔하고 遂登觀臺하야 以望而書하니 禮也러라. 凡分至啓閉에 必書雲物은 爲備故也라(주천자가 쓰는 역으로 정월 신해날 초하루에 해가 正南에 이르렀다. 공은 초하루임을 종묘에 고하고 그 달의 曆을 받고서 비로소 관대에 올라 하늘을 바라다 보고 기운을 기록케 하니 그것이 예에 합치되는 일이었다. 무릇 春分, 秋分, 冬至, 夏至, 立春, 立夏, 立秋, 立冬에 반드시 구름의 기운을 관찰하여 기록하는 것은 미리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7]라 하였는데 이는 運氣學說의 성립이 오랜 세월을 걸친 기후변화의 관찰을 통해 이루어졌음을 반증하는 내용이다.

또 僖公 16年(B.C 644), "隕石于宋五"와 "六鷁退飛"의 사건에 대해 周內史叔興은 이를 吉凶所生이 아닌 陰陽之事로 설명하고 있는데 이는 자연계의 사건을 陰陽의 원리로 설명하려는 시도로써 運氣學說의 초보적 맹아를 엿볼 수 있다.

또 左傳 襄公 28年(B.C 545)條에 다음과 같은 記錄이 있다. "二十八年이라 春에 無氷하다 梓愼이 曰今玆宋鄭이 其饑乎ㄴ저 歲在星紀而 淫於玄枵하야 以有時菑하니 陰不堪陽이로다 蛇가 乘龍하니 龍은 宋鄭之星也니 宋鄭이 必饑하리라 玄枵는 虛中也오 枵는 耗名也니 土虛而民耗면 不饑何爲리오 (魯襄公 28年 B.C 545年 봄에

3) 上揭書 pp. 486~487
4) 上揭書 p. 487
5) 上揭書 p. 493
6) 成百曉 譯註 詩經, 서울, 傳統文化硏究會 1993, p. 186
7) 春秋(天), 대전, 學民文化社. p. 412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응당 얼음이 얼어야 하는데 얼지 않았다. 노나라 대부인 梓愼이 이르기를 금년에 宋나라와 鄭나라가 흉년이 들 것이다. 금년의 歲星 즉 木星이 응당 星紀인 丑의 斗牛之間에 있어야 하는데 침범하여 子인 虛危之間에 있어 淫行失次하여 때의 재앙이 있으니 이것은 盛陰이 用事하는 때임에도 불구하고 陰이 陽을 이기지 못한 것이다. 뱀, 즉 玄武之宿인 虛危가 龍인 歲星木을 타고 있는 것이니 龍인 歲星은 本位가 東方에 있고 東方은 房心이 宋이 되고 角亢이 鄭이 되니 이에 해당하는 宋鄭에 반드시 흉년이 들 것이다. 玄枵는 女, 虛, 危의 三宿로 구성되는데 이 중 虛는 가운데의 별자리이고 枵는 소모된다는 의미이니 土地가 虛해지고 백성이 감해질 것이니 凶年이 들지 않고 이찌 하겠는가)"[8]

이는 28宿와 陰陽五行의 관계를 이용하여 그 해의 氣候와 豊凶을 예측한 것으로 運氣學說의 태동에 중요한 사상적 기반을 이룬다.

## 3. 五六相合의 起源

運氣는 五運六氣의 준말로 天五地六의 原理로써 自然界의 氣候變化를 파악하는 것이다. 이것과 관련된 내용은 제일 먼저 左傳에 나타나며 그 내용도 풍부하다. 먼저 左傳 昭公元年(B.C 541)의 기록을 보면 다음과 같다.

"晋候가 求醫於秦이어늘 秦伯이 使醫和視之한데 曰疾不可爲也라 是謂近女室이니 疾如蠱라 …… 天有六氣하야 降生五味하며 發爲五色하며 徵爲五聲하며 淫生六疾하나니 六氣曰陰陽風雨晦明也라 分爲四時하며 序爲五節하니 過則爲災라 陰淫은 寒疾이오 陽淫은 熱疾이오 風淫은 末疾이오 雨淫은 腹疾이오 晦淫은 惑疾이오 明淫은 心疾이니 女 陽物而晦時라 淫則生內熱惑蠱之疾이라 (晋 平公이 秦나라에 醫師를 구하거늘 秦景公이 醫師 和로 하여금 診察하게 한데 和가 이르기를 疾病을 고칠 수 없습니다. 이것은 女色을 가까이 해서 생긴 病이라고 부르는데 精神이 迷惑해지는 病입니다. 하늘에는 六氣가 있어 이것이 땅으로 내려와 五味를 생하며 五色으로 드러나며 五聲으로 나타나는데 이상의 것들이 지나치면 여섯가지의 疾病을 生합니다. 六氣는 陰陽風雨晦明인데 이것은 四時로 나뉘어지고 五行의 節度로 順序를 이룹니다. 지나치면 災害가 되는데 陰이 지나치면 寒病이 되고 陽이 지나치면 熱病이 되고 風이 지나치면 四肢病이 되고 雨가 지나치면 腹病이 되고 밤에 절제가 없으면 迷惑病이 되고 낮에 생각이 너무 지나치면 心病이 됩니다. 女子는 陽인 男子에 속하여 어두운 때 가까이 하는 존재로 지나치게 가까이 하면 內熱惑蠱의 病을 生하게 합니다.)"[9]

이는 五運六氣學說과 상당히 밀접한 내용으로 다음과 같은 의의가 있다.

첫째, 四時, 五節, 六氣의 주요 개념이 형성되어 運氣學說로 發展할 수 있는 理論的 基礎를 이루고 있는데 六氣가 四時, 五節에 따라 순서적으로 作用한다는 생각은 後世 五運六氣說의 萌芽가 된다고 볼 수가 있다.

둘째, 여기서 말하는 六氣는 陰陽風雨晦明으로 後世의 風寒暑濕燥火와는 차이가 있지만 六氣라는 用語와 하늘에서 作用한다는 것은 運氣에서 말하는 六氣와 상당한 유사성이 있다.

셋째, 가장 중요한 것은 天六地五의 原理를 제시한 것으로 이것이 後世의 天五運 地六氣와는 반대로 되어 있지만 天五地六이 작용을 할 때에는

8) 上揭書, 春秋地. pp. 576 ~ 577.

9) 上揭書, 春秋(人). pp. 26~28.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天六地五가 되므로 後世의 五運六氣學說에 상당히 접근되어 있다.

넷째, 過則爲災의 개념도 지금의 太過爲病의 개념과 상당히 일치하고 있다.

이상을 살펴보면 이것이 직접 五運六氣學說로 발전되었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後世 五運六氣學說이 출현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계기가 되었을 것이라는 것은 넉넉히 추측할 수가 있다.

또 昭公 25年(B.C 517年)條에 游吉이 鄭子産의 말을 引用하여 말하기를

"則天之明하며 因地之性하여 生其六氣하며 用其五行이니 氣爲五味하며 發爲五色하며 章爲五聲이라(하늘의 밝음을 본받고 땅의 본성을 의지하여 陰陽風雨晦明의 六氣를 생하며 五行을 사용하니 六氣는 五味를 만들며 五色으로 나타나며 五聲으로 드러납니다.)[10]라고 하였다.

이 文章은 앞의 天六地五의 원리와 동일하지만 하늘의 六氣와 땅의 五行을 함께 논하고 있다는 데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 다시 말해 地上의 모든 萬物은 근본이 있는데 그 근본은 하늘의 六氣에서 來原하고 있으며 五行은 땅에서 來原하여 이 둘의 相互作用에 의해 地上의 萬物이 生함을 논한 것이다.

그런데 이 天六地五의 이론이 가장 먼저 보이는 곳은 國語의 周語下에서 單襄公이 그의 아들 頃公에게 晋周(後의 晋悼公)를 잘 대우하기를 부탁하는 가운데 "天六地五는 數之常也니 經之以天하고 緯之以地라 經緯不爽은 文之象也라(하늘에 六氣가 있고 땅에 五行이 있는 것은 떳떳한 이치이니 하늘의 六氣가 經이 되고 땅의 五行이 緯가 된다. 經緯가 어긋나지 않는 것은 德行의 表象이 된다.)"[11]고 하였다. 晋悼公은 B.C.573~558年 사이에 在位하였으므로 이 글은 魯·昭公때의 기록보다 30여년 이전의 기록이 된다. 이곳의 六氣도 물론 陰陽風雨晦明이고 五行은 木火土金水가 된다. 天六地五로 數之常으로 삼은 것은 하늘은 六의 원리로, 땅은 五의 원리로 萬物을 개괄한 것이다.

하늘을 氣로 땅을 물질로 본 것은 지금의 運氣學說의 내용과도 일치하고 있다. 天元紀大論에 "在天爲風은 在地爲木하고 在天爲熱은 在地爲火하고 在天爲濕은 在地爲土하고 在天爲燥는 在地爲金하고 在天爲寒은 在地爲水라 故로 在天爲氣하고 在地成形하니 形氣相感而化生萬物矣라"[12]하여 역시 天氣地質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 4. 運氣와 관련된 초기의 기록

現存하는 文獻의 記錄에 根據해 보면 五運學說과 관련된 내용은 戰國時代 末年에 나온 呂氏春秋의 十二紀로까지 소급되어 올라간다.

"孟春에 行夏令則風雨不時하며 草木早槁하며 國乃有恐이오
行秋令則民大疫하며 疾風暴雨數至하며 藜莠蓬蒿竝興이오
行冬令則水潦爲敗하며 霜雪大摯하며 首種不入이라[13]

仲春에 行秋令則其國大水하며 寒氣總至하며 寇戎來征이오
行冬令則陽氣不勝하며 麥來不熟하며 民多相掠하며

10) 上揭書, p289.
11) 薛安勤 王連生 注譯, 國語譯注, 長春, 吉林文史出版社, 1991, p.103
12) 洪元植, 精校黃帝內經, 서울, 東洋醫學硏究院, 1981, p.127.
13) 陳奇猷校釋, 呂氏春秋校釋, 上海, 學林出版社, 1984, p.2.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行夏令則國乃大旱하며 煙 氣早來하며 蟲螟爲害라[14]

季春에 行冬令則寒氣時發하며 草木皆肅하며 國有大恐이오

行夏令則民多疾疫하며 時雨不降하며 山陵不收오

行冬令則天多沈陰하며 淫雨早降하며 兵革竝起라[15]

(기타 9個月의 異常氣候는 省略)

여기에 비록 主運, 客運의 말은 없지만 孟春, 仲春, 季春은 主時之位를 말한 것이고 行夏令, 行秋令, 行冬令은 後世의 客運과 유사하다는 것을 살펴볼 수 있다. 그런데 淮南子의 時則訓을 보면 그 내용이 이것과 거의 同一하다.

또 主運의 時期와 主運의 周期에 대해서도 B.C 2세기 中葉에 記錄된 淮南子의 天文訓에 명확한 記錄이 있다. "壬午冬至면 甲子受制하나니 木用事하며 火烟青이오 七十二日丙子에 受制하면 火用事하며 火烟赤이오 七十二日戊子에 受制하면 土用事하며 火烟黃이오 七十二日庚子에 受制하면 金用事하며 火烟白이오 七十二日壬子에 受制하면 水用事하며 火烟黑이라"[16]

이상의 내용은 "壬午日이 冬至였다면 그후 처음 맏는 甲子日에 命을 받아 春季를 主管하는데 이때 木氣가 用事를 하고 煙氣는 青色이오 72日이 지난 丙子에 命을 받으면 火氣가 用事를 하고 ……72日이 지난 壬子에 命을 받으면 水氣가 用事를 하고 煙氣는 黑色이다"라는 것으로 主運의 시작인 木運이 冬至후 첫째 甲子日에 시작하여 72日동안 作用하고 이후 火, 土, 金, 水運도 각각 72日씩 작용한다는 것이니 지금 運氣에서 말하는 主運과 거의 유사하다. 또한 이어서 나오는 "甲子其燥濁하며 丙子氣燥陽하며 戊子氣濕濁하며 庚子氣燥寒하며 壬子氣青寒"[17]은 主運에 대한 더욱 구체적인 설명인 것이고 "丙子干甲子하면 蟄蟲早出故로 雷早行하며 戊子干甲子하면 胎夭卵?하며 烏蟲多傷하며 庚子干甲子하면 有兵하며 壬子干甲子하면 春爲霜이라(이하 戊子干丙子 등 16條는 생략"[18]는 분명 客運과 관련된 내용임을 긍정할 수 있다. 이상의 내용을 분석해보면 五運의 學說이 六氣學說보다 더 먼저 확립되었을 것이라는 것을 추정해 볼 수 있다.

## 5. 干支紀年

素問의 六微旨大論에 "天氣始于甲 地氣始于子 子甲相合 命曰歲立"이라 하였는데 이는 干支紀年法이다. 中國에서 公式的으로 干支로 紀年한 것은 後漢때의 일로 알려져 있는데 이는 運氣學說의 起源을 밝히는데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

干支의 起源에 관하여는 黃帝가 大撓에게 命하여 최초로 만들어 졌다는 說이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다. 실제로 은나라의 역대 임금들의 이름이 모두 十干으로 되어 있고 甲骨文에 天干이 많이 등장하는 것으로 보아 그 역사가 유구함을 인정할 수 있다. 또 十二支에 관하여도 十二月의 記錄법으로 夏나라때는 寅正을 사용하고 殷나라때는 丑正을 사용하고 周때는 子正을 썼다는 기록을 보더라도 역시 그 역사가 오래됨을 긍정할 수 있다. 干支를 結合한 최초의 記錄으로는 春秋에 나타나는데 여기서는 日辰의 記錄으로써 多用되고 있다.

그리고 干支를 가지고 紀月을 했다는 公式的인

14) 上揭書, p. 64.
15) 上揭書, p. 122.
16) 劉安著, 許匡一譯註, 淮南子全譯, 中國, 貴州人民出版社, 1993, p. 143.
17) 上揭書. p. 147.
18) 上揭書. p. 147.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記錄은 B.C 104년 한무제때 太初曆을 頒布함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이 學者들의 일반적인 見解이다.

干支紀年은 東漢章帝 元和二年(A.D.85年) 四分曆을 頒布하면서 시작되었다. 그러나 일부의 學者들은 東漢 順帝 永建元年 즉 A.D.126年에야 비로소 正式으로 干支紀年法이 使用되었다고 主張하고 있다.[19] 그렇다고 하여 東漢以前에 干支紀年法이 없었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믿을만한 證據에 依하건데 西漢初年에 干支紀年法이 이미 發明되어 있었다. 예를 들어 淮南王 劉安이 많은 學者들을 모아서 만든 淮南子속에 "天維建元은 常以寅始起하야 右徙一歲而移하야 十二歲而大周天하고 終而復始라 淮南元年冬은 太一이 在丙子하고 冬至는 甲午요 立春은 丙子라(太歲로 紀年하는 것은 항상 歲星이 營室, 東井의 二宿部位에 있고 大歲가 相應하는 것은 寅辰部位에 있는데 근거하여 元年을 삼는다. 歲星은 右側으로 運行하여 一年後에는 다음의 星次로 移轉하고 12年이 지나면 一周天을 完走하였다가 다시 시작한다. 淮南王 元年의 겨울은 大歲가 甲子(B.C 164年)에 있었고 冬至는 甲午日 있었고 立春은 丙子日이었다."[20]

이는 干支紀年法이 비록 東漢에 이르러 官方의 曆法에 채용이 되었지만 四分曆이 頒布되기 前 250年의 西漢初期에 民間에서, 특히 淮南王이 관할하던 지역에서 유행되었음을 설명하는 자료이다. 그렇지 않다면 "淮南元年冬 太乙在丙子"의 記錄은 있을 수가 없다.

干支紀年法이 使用되기 前에는 左傳에서는 王公卽位의 年次로 紀年하였고 또 歲星紀年法과 太歲紀年法 等을 使用하였으며, 歲陽歲名紀年法도 活用하였다.

19) 王玉川, 運氣探秘, 北京, 華夏出版社, 1993. p.140.
20) 淮南子. 上揭書. p.138.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볼 때 運氣學說이 出現한 시기는 A.D.85年 이후가 된다는 것을 확신할 수가 있다.

## 6. 結論

運氣學說의 기원과 관련된 여러 사실을 考察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임금이 四時氣候를 관찰하여 백성들이 농사를 짓는데 편리를 제공한 책력의 발달과 日, 月, 星, 辰 等의 天象의 記錄, 雲物의 記錄, 自然現象의 觀察 오랜 세월에 걸친 기후변화의 관찰 等과 이를 陰陽五行의 理論으로 說明을 試圖한 것이 運氣學說의 태동에 중요한 계기를 이루었다.

2. 左傳과 國語에 나타난 天有六氣 降生五行의 理論은 後世의 五運六氣說이 出現하는데 중요한 理論的 背景을 이루고 있다.

3. 呂氏春秋와 淮南子 등에 지금 五運학설과 유사한 主運, 客運에 비견되는 내용이 기술된 것으로 보아 運氣學說은 오랜 경험의 축적을 통해 형성된 것으로 사료되며 五運說이 六氣說보다 먼저 이루어 진 것으로 추측된다.

4. 五運六氣學說은 干支紀年法에 바탕을 두고 있고, 干支紀年法이 공인된 것은 A.D.85년 四分曆이 시행된 이후의 일이므로 이 이후에 運氣學說이 성립되었음을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다.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 參考文獻

1. 書經集傳, 서울, 二以會刊, 1983.
2. 薛安勤, 王連生 注譯, 國語譯注, 長春, 吉林文史出版社, 1991.
3. 成百曉 譯註, 詩經, 서울, 傳統文化硏究會, 1993.
4. 王玉川, 運氣探秘, 北京, 華夏出版社, 1993.
5. 劉安 著, 許匡一譯註, 淮南子全譯, 中國, 貴州人民出版社, 1993.
6. 陣奇猷校釋, 呂氏春秋校譯, 上海, 學林出版社, 1984.
7. 春秋(天地人), 大田, 學民文化社.
8. 홍원식, 精校黃帝內經, 서울, 東洋醫學硏究院, 1981.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